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WSJ,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
- KOCHAM은 9월 23일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주소지 445 Park Ave. NY NY, 11102, 10th floor)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2분기 경제, 거의 2년 만에 가장 빨리 성장
- WSJ: 미 내구재 주문 반등... 항공기 수요 급등에
- Bloomberg: 백악관, 연방 부처들에 “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비하라”
- WSJ: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감소

[미국 금융]

- WSJ 금리 인하가 당신의 응자 이자를 곧바로 낮추지 않는다:
- WSJ: 견조한 GDP 성장에 국폐 금리 상승, 기술주 타격
- Reuters: ‘관세 조치가 달리 기축 통화 변경 아닌 약화 시킬 뿐이다’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철강 관세에 멕시코 등은 중국에 규제

[주택]

- CNBC: 오피스 투자 수요, 2025년 상반기에 활င은 증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Finance: 스타벅스, 일자리 900개 감축 및 매장 폐쇄 계획
- Bloomberg: Spotify, AI 생성 콘텐츠 단속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Economy Grows at Fastest Pace in Nearly Two Years on Consumer Spending 미 2분기 경제, 거의 2년만에 가장 빨리 성장

- 연방정부가 당초 소비 지출 추정치를 상향조정하면서 2분기 미 경제 성장이 거의 2년만에 가장 빨리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오늘 목요일 연방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인플레 조정 GDP가 연율로 3.8% 성장했다. 당초 발표 3.3% 보다 높았다.
- 또한 경제분석국은 실질 GDP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2.4%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발표했다.

US Economy Expands at Fastest Pace in Nearly Two Years

Revised second-quarter data reflected pickup in household spending

■ Gross domestic product (QoQ, SAAR) / Personal consumption (QoQ, SAAR)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WSJ: Durable-Goods Orders Bounce Back on Surge in Aircraft Demand 미 내구재 주문 반등... 항공기 수요 급등에

- 미 전체 내구재 주문이 6월과 7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2.9%로 상승하면서 회복되었다.
- 특히 군사용 항공기와 부품 주문이 50%나 꺾충 뛰어 전체 주문 상승에 크게 이바지했다.
- 반면에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8월에 0.4% 약간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White House Tells Agencies to Prepare for Job Cuts in Shutdown

백악관, 연방 부처들에 “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축소에 대비하라”

- 백악관 예산국이 연방 기관들에 “대량 해고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폐쇄 프로토콜”을 더욱 넘어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폐쇄 프로토콜”이란, 정부 자금이 부족할 때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부 기관의 직원에게 휴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 직원은 정부 자금이 회복되면 미지급 임금을 받으며 복귀하게 된다.
- 그러나 이제는 자금이 부족한 프로젝트를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분야의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없애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일반적인 셧다운 상황에서는 연방 직원 10명 중 6명이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데, 나머지 4명은 예산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감소

-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32,000건에서 218,000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약간의 안도감을 발표 수치다.
-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3만 건을 기록했는데,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둔화하였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
-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 부진이 해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많은 해고가 더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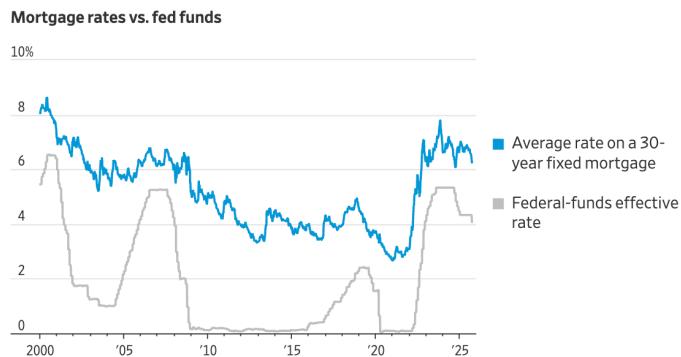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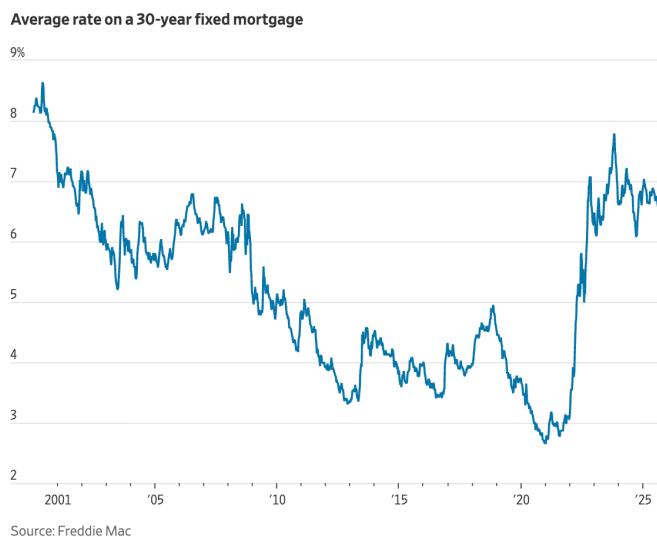
WSJ: Why Lower Fed Rates Won't Instantly Lower Your Borrowing Costs

금리 인하가 당신의 융자 이자를 곧바로 낮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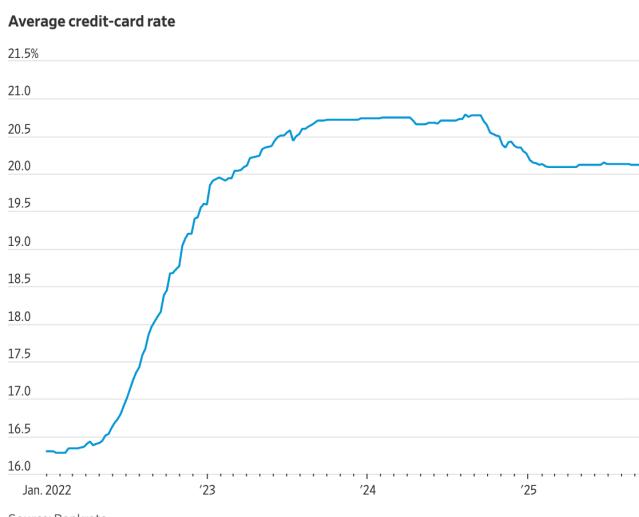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받는 이들은 이자율 인하를 계속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 예컨대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금년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는 올해말까지 모기지율이 실제로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말이 되어서도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연준은 단기 금리 변동을 시도하지만 모기지율은 크게 보아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국채금리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크레딧 카드 이자율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라 내려 가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자동차 융자 이자율의 경우 여러가지 다른 변수 등 즉, 융자 기간, 금액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축에 대해 은행은 금리 인하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저축 이자도 점차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Mortgages



Credit cards



WSJ 기사

Bloomberg: Stocks Hit by Tech Rout as Solid GDP Lifts Yields: Markets Wrap 견조한 GDP 성장에 국채 금리 상승, 기술주 타격

-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목요일 발표로 국채가 하락했으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타격을 입었다.
- 이날 GDP 소식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한 반면에 S&P 500은 거의 1% 가까이 하락중이며 매그니피ஸ트 7개 기술주 포함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하락 중이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GDP강세가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는 향후 GDP 예상이 아니

고 과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Reuters: Tariffs could weaken, but not yet reverse, the dollar's reserve status, research shows
'관세 조치가 달려 기축 통화 변경 아닌 약화 시킬 뿐이다'

- 트럼프가 올해 4월 대규모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정부의 완화된 관세 입장으로 기축통화국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연구 결과는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스턴 대학등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다.
- 트럼프의 현재 평균적인 관세율은 17%~18%를 유지하고 있어 달러를 약화시키겠지만 타격을 주지은 않을 것이라는 것.
- 이들 발표자는 달러의 안전 자산이라는 특성은 여전히 미 금리를 낮추고, 글로벌 투자의 중심이 되며 원화 거래 안정화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계속적인 무역전쟁이 이같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s Steel Tariffs Are Triggering Counterstrikes From US Neighbors — Against China
트럼프 철강 관세에 멕시코 등은 중국에 규제

-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브라질은 대미 수출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하면서 내수 수요 증가를 진작시키고 있다.
- 특히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값싼 철강 수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높이고 키나다는 중국 철강에 25% 관세 부과, 그리고 브라질은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이같은 조치들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입장이 완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내 철강 산업 장려를 위한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조치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BC: Office investor demand was way up in the first half of 2025, according to exclusive JLL data
오피스 투자 수요, 2025년 상반기에 훨씬 증가

- 미국 오피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 규모가 강화되어 총 산업 규모가 259억 달러를 기록했다.
- 글로벌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 JLL의 판매 거래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110% 증가했다. 이는 데이터 센터 등 다른 자산 유형의 거래량의 두 배 이상이다.
-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는 전년 대비 2025년 상반기에 약 130% 증가했다. 이는 더 나은 업무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 오피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내년에는 6백만 개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지난 4년 연평균보다 90%^ 낮은 수치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YahooFinance: Starbucks announces plans to cut another 900 jobs and close more stores as its turnaround struggles continue
스타벅스, 일자리 900개 감축 및 매장 폐쇄 계획

- 스타벅스 CEO Brian Nicole이 수익성이 없는 위치의 매장을 폐쇄하고 기업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 직원들에게는 9월 26일 금요일 해고가 통보될 것이며, “급여 연장을 포함한 퇴직 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분기 실적에서 스타벅스는 6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매장 수를 약 1%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스타벅스 지점은 18,842개에서 약 18,300개로 줄어들게 된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Spotify Embraces AI While Cracking Down on Fraud Spotify, AI 생성 콘텐츠 단속 예정

- Spotify는 사용자의 앱 사용을 방해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더욱 단속하는 동시에, 더 빠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AI 툴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 또한, AI를 사용하여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I를 이용해 저작권료 지급을 방해하는 트랙도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스팸 식별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 이에 관해, 이들은 지난 1년간 플랫폼에서 7,500만 개 이상의 “스팸 트랙”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팸 트랙들은 AI를 활용해 수십만 곡의 노래를 만들고 해당 노래에 대해 스트리밍을 유도하여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WSJ 기사

美에너지장관 "알래스카 LNG 사업 韓·日 기업과 협의중"

기사 요약

-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의 참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을 통해 천연가스를 추출해 남쪽 항구로 운송·액화 후 아시아로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 총 807마일(약 1,297km) 구간에 파이프라인과 액화 터미널을 설치하며, 약 450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